"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산문밖의 禪

예복전문가 권오수 씨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

가끔 우문(愚問)이 현답(賢答)을 낳는 경우가 있다. 권오수(51세)씨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 일의 지혜를 배운다. 어느새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야 기술 배우고 솜씨 가꾸기 바빠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지만 몇 년간의 노력이 자신감을 심어 준 시점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고.

'어떻게 만들까' 화두

그런데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입는가'라는데 대한 답 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질문으로 전환된다. 우문이 푹 삭아서 스스로 현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든 옷이 누구에게 어떻게 입혀질까, 그는 내가 만든 옷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 보일까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더구나 수작업 위주로 만드는 예복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되죠."

권씨는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 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에 맞는 옷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에 맞춘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그런 평을 들은 것은 아니다. 다만 소신껏 한 길을 열심히 걸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스스로 나태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을 뿐이다. 옷은 정직한 것이다. 고객의 몸이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한 옷은 정확히 고객의 몸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한 부분이라도 치수가 틀리거나 바느질이 잘못되면 입는 사람이 예민하게 알아낸다. 고객보다 먼저 흠을 잡아야 하고 아예 흠을 내지 말아야 한다. 권씨는 이제 예복에 관한 한 자신이 있다. 그러나 자만하지는 않는다.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예복을 만드는 사람은 이 부담감에서 좀체로 해방될 수 없다. 쓰임의 특별함 만큼이나 보는 사람들의 안목도 남다르다. 권씨는 이런 부담감을 벗어 던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솜씨에 자만하지 않고 고객의 취향과 신체적 조건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일에서 한땀한땀의 바느질에까지 혼을 불어넣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고객을 대하면 첫 이상에서 이미 그 사람에게 어울릴 색상과 디자인의 밑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 보면 그 밑그림은 거의 들어 맞지만 그래도 새로운 개성의 발견을 위해 많은 견본을 대입시켜 봅니다. 누구에게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개성이 있는 법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보다 잘 어울리는 옷을 만드는 것이 그의 숙제다. 다시말해서 옷 만드는 일이 수행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자연스러운 옷을 만드는 것이 백척간두에 매달아 둔 화두인 셈이다.

입어서 자연스런 옷 '고객만족'…"정성이 최고비법"

첫인상따라 색상·디자인 결정…컴퓨터로 재확인

그 화두를 풀기 위해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언제나 마음을 비워야 한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 똑 같은 옷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설레임과 고객의 만족이라는 결과를 위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스스로 정한 남다른 경영철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절대 에누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건값 깍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는 우리의 관습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값을 흥정하는 장사속의 분위기가 싫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모든 측면을 고려해 가장 적정한 가격을 매겨 둔 것인데 에누리를 해 버리면 결국 자신의 일을 속여야 한다는 것이 싫은 것이다. 값을 깍아주면 재료나 정성의 감량도 문제지만 스스로 마음을 덜 쓸 수 있다는데서 일체의 에누리를 사절 하는 것이다.

권씨는 늘 새로운 것을 찾는다. 10년 전 업계와 주위 사람들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 예복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예복문화를 심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비싼 가격이 주는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도 매우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복지의 세계적 메이커인 이태리에 직접 주문해 들여온 원단은 오히려 더 품위있고 저렴한 예복의 보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예복의 값을 일반 맞춤 양복값과 큰 차이 없도록 함으로 그는 예복문화를 정착 시킨 것이다. 이제 그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예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혼 깃든 30년 솜씨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다양한 고객의 욕구는 그의 30년 경험을 앞선다. 그래서 올 봄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다. 고객의 전신 사진을 즉석에서 찍어 컴퓨터에 수록된 각양의 원단과 디자인에 대한 정보에 대입시켜 완성된 옷을 입은 고객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는 이 작업은 상당한 신뢰도를 담보해 주고 있다. 급변하는 패션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전통 수작업의 맛을 살리는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옷을 디자인 하는 것은 미술과 통하고 자연스런 선과 각을 살리며 바느질을 하는 것은 음악의 유연성과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옷은 고객에게는 옷이지만 나에게는 작품일 수 밖에 없으므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조예를 가진 권씨는 장인정신이 없이는 한벌의 옷도 제대로 만들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색상과 디자인 선정, 재단까지의 공정에 대한 컴퓨터화로 가봉을 위한 두번 걸음을 없애기까지 부단의 노력을 기울인 권씨지만 견고하고 편안한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임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고 자신을 향해 묻는다.

임연태 기자

불경외는 것도 공부인지요

문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다만 시간나는 대로 마음을 비우고 무조건 경을 외우곤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때는 누워서 두손을 가슴에 얹고 경을 외우는 제나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되는지요?

〈김명숙·부산 사하구 당리동〉

답 어떤 경이 되었든 경을 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을 외더라도 그 뜻을 마음으로 새기며 외어야지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왼다면 그건 '음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마다 보면 '이 경의 사구게 하나만이라도 수지독송하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입으로 하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도이지 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면 흔히들 해달라고 비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기도는 비는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부처님 자리에다 내 마음의 코드를 꽉 꽂아놓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하면 그것은 기복이나 구복이 아니라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걸 코드꽂는다고 하느냐? '나'라는 생각을 쑥 빼어놓고 일체는 부처님 자리에서 한다고 믿어 일체를 놓고 맡기는 것이 코드를 꽂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자리에 코드를 꽂으려니까 도무지 형체도 없지 대상도 없지, 그냥 공에다 꽂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저 나무들이 어떻게 가지 벌리고 잎이 나게 할건가 하고 말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기에 가지도 살리고 잎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존재도 그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뿌리의 정체가 뭐냐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차차 알게 될테니까 처음엔 그저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게 우선입니다. 나는 그 뿌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름하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꽂으려면 이렇게, '주인공, 네가 나의 근본이니까 일체를 네게 맡긴다'하고 그냥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는 의식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고 그래야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기도만이 참다운 기도입니다. 안으로 내 참 성품에 드리는 경배일 때에 기도의 공덕이 있는 것이지 밖으로 부처님을 세워놓고 하는 기도는 평생을 해도 기도가 아닙니다.

안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한 자세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기도는 항상 숙연하고 겸허하고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무치는 마음이어야 불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이 마음도리는 그렇게 탁 터진 길입니다. 스님들이 이 공부 하라고 하고 애써 가르치는 것은 사방이 탁 터지고, 우주 전체가 다 요 손, 부처님 손 안에 있으니 별에 별 일 다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 하시려면 첫째 믿어야 하고…, 뭘 믿느냐? 그렇게 탁 터지고 한 생각에 전체를 살리는 법이라는 걸 믿어야 하고, 둘째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 둘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49재때 스님 오시지 않아 섭섭…

문 얼마전 제 남편의 49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한 대덕스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좀 섭섭했습니다. 제 남편이 좋은 길로 가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스님께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장호순·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답 스님이 안오셔서 좋은데로 갔을지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데 이 육신이야 고기덩어리 같은 것이고 집 같고 차 같은 것 아닙니까? 차는 안왔어도 운전수만 다녀갔노라 하면 어쩌시렵니까? 운전수만 가면 됐지 이 차 안끌고 간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안다녀갔다고 하는건 보살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이니 못본 것은 보살님 탓이지요?

굳게 믿는 한 생각이 전체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자성불을 믿지 못하니까 남도 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요. 또 좋은 데로 간 건 당연하지 뭘 걱정이십니까? 한 찰나가 대문 밖이고 한 찰나가 대문 안입니다. 그러니 뭘 걱정입니까? 강이 깊어 빠질까 걱정입니까? 산이 높아 넘질 못할까 걱정입니까? 길이 멀어서 힘이 들까 걱정입니까?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직장동료와 사이가 불편합니다

문 회사원입니다. 직장동료 중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근무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다 말을 하자니 그럴 사정도 못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용준·서울 은평구 갈현동〉

답 세상 모든 일이 다 내가 있음으로써 벌어졌습니다. 내가 없다면 우주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도 회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게 내탓이란 말입니다. 나 있고 세상 벌어졌으니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밉게 보일 때는 이렇게 한 생각 돌려보세요. "아, 저것도 내가 몰랐던 때의 내 모습이지. 모든게 내탓이지"하고 말입니다. 누구나 수억겁 거쳐오면서 오늘에 사람 몸 받고 태어나 살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는 나도 저런 모습이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 못났을 때, 나 몰랐을 때의 모습과 그 모습이 다를게 없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거든 주인공 자리에 놓고 지켜보도록 하세요.

불교·영어·서예

Ⅰ. 불교 교리 강좌
- 법문: 무진장 스님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대상: 일반 신도
- 내용: 불교 교리 강의(교재 무료 제공)

Ⅱ. 영어 불교 교리 강좌
- 강사: 현각 스님(미국 출신)
  - 예일대 졸업(서양철학 전공)
  - 하바드대학원 불교학 전공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개강
- 대상: 불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내용: The life and teaching Buddha (수강료 및 교재등 무료)

Ⅲ. 서예·한문 강좌
- 강사: 법공 스님
- 일시: 매주 화, 수, 목요일 10:00~15:00
- 대상: 불자인 모든 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전화: 517-3052,515-9604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심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 심장질환자 92%, 비뇨기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옥전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온몸저림 84%, 온몸 결리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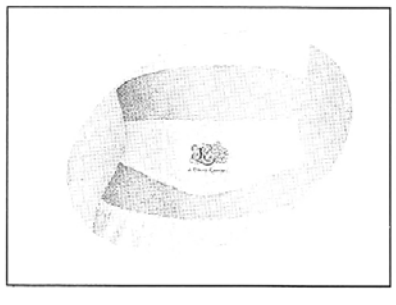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관념을 과학자의 판단능력은 넘어선 신 힘,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그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